

역사 없는 사람들의 세계*

-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삶』

배운기**

| 국문초록 |

이 글은 『파리와 런던』이 오웰 문학의 전체적 맥락에서 어떤 위치에 자리하는지를 탐색한다. 작품의 위치에 관한 평가 작업은 작품 간 관계를 그리는 방법으로, 작가의 전체 작품들을 유기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다. 나는 오웰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글쓰기 관점, 태도, 주제 등 세 각도에서 평가해 본다.

첫째, 오웰의 글쓰기 관점은 언제나 사안이 일어나는 현장과 현재라는 원점에서 나온다. 이런 관점은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추상적 이론과 그것이 약속하는 미래를 불신하는데, 이는 근대적 시공간 관념을 낳은 역사 개념의 변화·발전 과정과 오웰 관점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둘째, 문제의식의 발현으로서 글쓰기 태도는 시대적 흐름이 조성하는 거대한 허위의 결을 거슬러 글을 쓰게 만든다. 동시대를 지배하는 이념, 운동, 전쟁 따위가 방사하는 거짓의 위장을 벗겨내 ‘진실’을 밝히려는 글쓰기 태도의 형성 배경을 『위건 부두』를 참조하여 탐문한다. 셋째, 글쓰기 주제는 20세기 초반부터 전 세계를 국가 간 경쟁과 전쟁의 광기로 몰아넣고 있던 군국주의 분위기에서 사회로부터 착취당하고 버림받고 숨겨지는 희생자들에게 가해지는 비인간화를 비판하며, 이들의 인간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를 향한 꿈이다. 그의 이런 주제 의식은 항상 ‘밑바닥에서부터’ 발아되고, 그 밑바닥이 오웰 글쓰기의 원점이 된다.

『파리와 런던』은 단순히 그의 첫 작품으로서뿐 아니라, 이런 세 국면에서 오웰이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82512)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bygwin@hanmail.net)

나름의 글쓰기 스타일로 이후 작품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제기하는 쟁점들의 씨앗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요어: 조지 오웰, 역사 없는 사람들,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삶, 근대적 시공간 관념, 공동체

| 차례 |

1. 여는 말
2. 근대 '역사'와 역사 없는 사람들
3. 역사 없는 사람들에게로 가는 여정
4. 역사 없는 사람들의 세계
5. 맺는 말: 역사의 그늘진 자리, 희망의 텃밭

1. 여는 말

영국 작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본명 Eric Arthur Blair)의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삶(Down and Out in Paris and London)』¹⁾은, 전업 작가가 되기 위해 런던과 파리에서 습작과 현장 체험을 병행하며 몇몇 잡지에 에세이를 발표하던, 에릭 블레어가 작가 수업 약 5년 즈음 1933년 1월 9일 발표한 첫 단행본 작품이다. 원래 파리의 접시닢이 경험을 담아 구성한 첫 원고는 『어느 접시닢이 일기(A Scullion's Diary)』라는 제목으로 1930년 10월 완성되었다. 당시 원고를 검토한 출판사 조나단 케이프(Jonathan Cape)가 분량이 너무 짧고 잡동사니 같다고 거절했다. 그는 여기에 몇몇 빈민가 인물들 일화를 추가해서, 같은 출판사에 내밀었으나 역시 거부당했다. 블레어는 궁리 끝에 1931년 런던 부랑인 생활 부분을 덧붙여 다시 마무리했는데, 이

1) 이하 본문에서는 『파리와 런던』으로 줄여서 표기한다.

번엔 더 두툼해진 타이프 원고로 출판사 파버 앤 파버(Faber and Faber)의 문을 두드렸다. 이곳 편집장 엘리엇(T. S. Eliot)은 “우리는 작품이 아주 흥미롭다고 인정하지만, 출판의 모험을 감행할 만큼 인상적이지 않아 유감”²⁾이라는 거절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보면 오웰의 책 다수가 글 형식과 내용의 낯섦, 구성의 비일관성, 혹은 정치적 이견 등 이유로 출판사를 찾지 못하거나 편집진과 불화를 겪었는데, 그런 우여곡절은 첫 작품부터였다. 수차례 실패를 거듭한 블레이어는 결국 어느 날 친구들에게 원고 폐기를 부탁했다. 당시 몰두하던 첫 소설 『버마 시절(Burmese Days, 1934)』 집필에 방해가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부탁받은 친구 중 한 명이 1928년 개업한 신생 출판사 골란츠(Gollancz)³⁾를 소개받고 보냈는데, 유럽 대도시 빈곤 문제를 심층 취재한 희귀하고 생생한 체험담에 직감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폐기 직전 원고는 간신히 되살아났다. 작가의 꿈을 반기지 않는 가족의 우려를 감안,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으로 출판한 이 책은 영국 문단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동시대 비평가들로부터 적잖이 칭찬받기도 했다. 초판 약 3,000부 정도가 모두 팔렸을 정도로 젊은 무명작가 첫 작품치고는 꽤 높은 성과로 평가됐다. 6개월 후 미국에서도 출판됐는데,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⁴⁾

『파리와 런던』은 총 38장인데, 제1부 파리 빈민가 생활이 23개 장으로 2/3 정도 분량이고, 나머지 15개 장이 런던과 주변을 유랑하는 부랑인 생

2) Dervla Murphy, “Introduction”. George Orwell, *Down and Out in Paris and London*. London: Penguin, 2001, p. x.

3) 빅터 골란츠(Victor Gollancz)가 설립한 출판사. 사회주의 운동의 갈래로 ‘좌파 독서 클럽’을 전국적으로 운영하여 책을 공급했다. 그는 『파리와 런던』을 계기로 오웰의 전반기 출판을 담당했고, 오웰에게 1936년 영국 북부 탄광지대 노동자 생활 실태 르포를 제안 하여 이뤄진 결실이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이었는데, 책의 2부에 전개된 오웰의 독보적인 정치 논평에 동의하지 않아, 좌파 독자들을 향한 장문의 변명조 서문을 덧붙여 출판한 이후, 둘은 결별했다.

4) Dervla Murphy, op. cit., pp.xi-xii.

활동이다. 출판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원래 원고인 파리 대형 호텔 접시닻이 체험에 빈민가 환경의 “더러움과 기이한 삶들”⁵⁾의 일화가 추가되고, 또 여기에 런던 부랑인 생활과 독특한 인물들 사연도 덧붙는데, 이들의 기이한 모험적 이야기가 제각각 소설적 흥미를 자극함으로써, 전체 구성의 짜임새 부족을 보완한다. 출판 관련 곡절에서 예감되듯 일관성이 약간 떨어지고, 내용상 동시대 평단에서 크게 관심을 두는 정치 운동, 노동문제, 경제 공황 같은 사안을 직접 다루지 않은 데다, 주목도 높은 이론에 바탕을 두지도 않고, 작가의 이념이나 정치적 주장 혹은 쟁점이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은 작가 지망생의 독특한 빈민가 체험과 현장 이야기들을 채록한 첫 작품으로 오웰 도서 목록 한구석에 남았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7년 후 1940년, 당시 문고판 유행을 이끌던 신생 좌파 출판사 ‘펭귄(Penguin)’이 손바닥 크기의 6페니짜리 55,000부를 찍어내며 ‘소설’이라 잘못 분류한 이후, 우연이지만 어쩌면 행운으로, 『파리와 런던』은 대중에게 보급되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⁶⁾

실제로 『파리와 런던』의 장르는 모호하다. 작품 성격을 둘러싸고 다큐멘터리, 피카레스크 풍 소설, 자전적 체험 르포 등 주장들이 드문드문 이어졌던 이유도 그런 까닭이다. 심지어 ‘사회학적 보고서’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다. 또 역사학자들은 당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하기도 한다. 실제 작품을 뜯어보면, 빠르게 전개되는 짙막한 에피소드들과 가난하고 구차한 생활 관련 세밀한 감정 묘사들을 통해 단순 관찰이 아닌 실제 겪는 과정들이 매우 생생해서 독자를 그 상황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발휘한다. 여기에 보도문이나 사회학적 보고서에서 볼 수 없는 비밀상적이고 기이한

5) George Orwell, *Down and Out in Paris and London*. London: Penguin, 2001, p.5.
 이후 본문에서 George Orwell의 원서를 반복 인용하는 경우, 각주에서 책 제목의 대문자만을 축약해 표기한다.

6) Dervla Murphy, op. cit., pp.x-xii 참조.

빈민가 구전 일화들도 소개된다. 또 소설이라면 접할 수 없는 빈민과 부랑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과 편견, 이를 조장·파급하는 여론 주도 지식인들의 역할 따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현실적 대안까지 제안된다. 더욱이 단순한 자전적 체험기에서는 감상하기 힘든 빈민 생활의 다양한 면모들과 콩트 같은 독립적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저마다 색깔과 이름으로 슬라이드 사진처럼 선명하게 부각된다. 이렇게 여러모로 심사숙고하여 수렴되는 주된 의견은 ‘체험적 다큐멘터리’ 혹은 ‘논픽션 프로 문학’ 정도다.

이 글은 『파리와 런던』이 오웰 문학의 전체적 맥락에서 어떤 위치에 자리하는지를 탐색한다. 작품의 위치에 관한 평가 작업은 작품 간 관계를 그리는 방법으로, 작가의 전체 작품들을 유기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다. 나는 오웰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글쓰기 관점, 태도, 주제 등 세 각도에서 그 위상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첫째, 오웰의 글쓰기 관점은 언제나 사안이 일어나는 현장과 현재라는 원점에서 나온다. 이런 관점은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추상적 이론과 그것이 약속하는 꿈같은 미래를 불신하고, 현장에서의 직접적 경험과 환멸을 통해 사안의 진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근대적 시공간 관념을 낳은 역사 개념의 변화·발전 과정과 오웰 관점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둘째, 문제의식의 발현으로서 글쓰기 태도는 시대적 흐름이 조성하는 거대한 허위의 결을 고집스럽게도 거슬러 글을 쓰게 만든다. 동시대를 지배하는 이념, 운동, 전쟁 따위가 방사하는 거짓의 위장을 벗겨내 ‘진실’을 밝힘으로써, 현대인의 삶, 생각, 언어의 토대를 재구성할 필요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밝히기 위해, 오웰이 자기 성장과 글쓰기의 과정을 정리한 『위건 부두로 가는 길(Road to Wigan Pier, 1937)』⁷⁾의 내용을 참조하여 『파리와 런던』과 이후 글쓰기 태도의 형성 배경을 탐문한다. 셋째, 글쓰기 주제는

7) 이하 본문에서는 『위건 부두』로 줄여서 표기한다.

이상적인 제국을 꿈꾸며 20세기 초반부터 전 세계를 국가 간 경쟁과 전쟁의 광기로 몰아넣고 있던 군국주의 분위기에서 사회로부터 착취당하고 버림받고 숨겨지는 희생자들에게 가해지는 비인간화 비판, 그리고 이들의 인간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를 향한 꿈이다. 그의 이런 주제 의식은 항상 ‘밑바닥에서부터’ 발아되고, 바로 그 밑바닥이 자기 경험의 고향과 같은 글쓰기의 원점이 된다.

『파리와 런던』은 단순히 그의 첫 작품으로서뿐 아니라, 이런 세 국면에서 오웰이 나름의 글쓰기 스타일로 이후 작품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제기하는 쟁점들의 씨앗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2. 근대 ‘역사’와 역사 없는 사람들

인류의 과거사에서 유럽의 20세기 초반만큼이나 다양한 정치 집단들이 갖가지 이상적인 ‘전망’, 사회개혁이나 혁명 혹은 전쟁, 그리고 성장과 발전 따위를 공공연히 ‘약속’함에 따라 대규모 균증을 그토록 들썩이게 한 시기는 없었다. 전망과 약속의 근거로 제시되는 이념이나 이론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현장이 아니라 지금 여기 없는 가상의 공간을 터전으로 삼는다. 또 필연적 결과로서 도래한다고 가정하는 전망과 약속을 전파하려는 집단 혹은 국가 들은 자기네 운동의 정당성과 연속성을 부각하기 위해 과거 사례들을 끌어와 역사를 재구성했다. 역사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려면, 역사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했다. 역사가 자기네 운동의 미래 비전에 맞춰 과거를 선별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자기들이 주장하는 미래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역사 개념으로 재구성된 역사는 이동 수단과 미디어의 혁명적 발전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확산했다. 근대적 시공간 의식은 근대인에게 여태까지 알 수 없는 시공간으로 신의

뜻에 맡겼던 미래를 인간의 의지와 행동으로 실현 가능한 비전으로 그리는 구체적 시공간으로 선물했다. 나는 그 근거에 근대적 시공간 의식을 체계화한 ‘역사’ 개념의 시공간적 확장 작업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싶다.

알려진 바와 같이, 헤겔을 비롯한 근대 역사가들이 정립한 역사철학은 역사 개념의 시공간적 확장 혹은 팽창 노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제공했다. 이들이 수행한 역사 개념의 근대적 정립은 제국의 역사를 뒤쫓아 정당화하는 발자국을 남겨왔다. 그에 맞춰 구성된 역사는 제국의 미래 목적을 위한 현재의 역사적 사명을 교육·홍보하는 근거가 되었고, 그 역사관을 모르거나 그 영향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역사 없는 사람’으로 생산하는 과정이었다. ‘근대적인 것’을 특징짓는 자본, 국가, 역사를 갖춘 자들의 특정 시공간을 스스로 ‘근대’라고 불렀고, ‘근대적인 것’이 없다고 정의되는 장소와 사람들을 자기들 잣대 안에 몰아넣고 “부재”, “결여”, “결핍” 등으로 분류했다. 그들은 ‘국가 없는 조건’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아갈 ‘역사 없는 사람’에게 그것의 필요 유무와 관계없이 시대정신이 없어 뒤떨어진 ‘전근대적인 것’⁸⁾이라고 성격 규정하며, 그들의 ‘교화’를 근대인의 자기 사명으로 정의했다. 새로운 의미의 역사가 이렇게 전 세계적 흐름을 만들어 위력적 힘을 발휘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따져보자.

근대 이전까지 ‘역사(history)’는 같은 어원의 이야기(story)와 더불어 “상상의 사건들에 관한 설명”뿐 아니라 “사실로 추정된 사건들에 관한 설명”⁹⁾ 모두에 적용되었다. 오랫동안 ‘공동체’는 특정 역사나 이야기를 전승하고 공유하는 집단을 일컬었다. 말과 글을 통한 이야기는 공통의 생활방식을 지키고 물려주는 유력한 방식이었다. 달리 말하면, 이야기는 공동체 유지

8) José Rabasa, *Without History: Subaltern Studies, the Zapatista Insurgency, and the Specter of History*, Pittsburgh: U of Pittsburgh P, 2010, pp.2~3 참조.

9) Raymond Williams, *New 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London: Flamingo, 1983, p.146.

와 발전의 핵심적 요소였다. 15세기부터 유럽은 세계관에서 생활방식까지 사회 각 부문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왕실과 교회와 자본의 해외 정복·선교와 교역, 국내적으로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 더불어 공동체 간 이동과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공동체 자체의 범위도 확대되면서 더 포괄적인 유대와 협력이 필요해졌다. 역사는 그 의미 변화와 함께 차츰 이야기와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역사는 “과거 실제 사건들에 관한 설명”이란 방향으로, 이야기는 “과거 사건들에 관한 덜 공식적인 설명과 상상된 사건들에 관한 설명”을 포괄하는 범위로, 각각 이동하고 있었다.

다시 15세기 후반부터 역사는 “과거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이란 의미”¹⁰⁾로 그 폭을 넓혔다. 그 이후로 줄곧 세계에 관한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려는 과학적 탐색과 더불어, 근대적 학술 체계를 세워가던 즈음의 역사는, 각기 다른 과거 경험을 통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들을 묶어 더 큰 공동체로 등장하는 국가 차원의 공감과 통일을 위한 역할에 복무하는 체계적 학문으로 발전했다. 여기에 더하여 18세기 초 나타난 ‘보편적 역사’ 개념은, 다양한 역사 가운데 물리적·지식적 선진 세력의 역사에 의미상 “인류의 자기 발전”¹¹⁾이라는 확장적 해석과 자기 주도적 해석,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의 팽창적 적용의 정당성과 강제력을 부여하도록 전개됐다. ‘보편’과 ‘인류’라는 말은, 오웰식 표현으로 하자면 ‘이중사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체계화된 위선으로 눈가림하며 정복과 지배를 공동 번영과 은혜로운 구원으로 자기기만 하는 표현이 됐다. 유럽과 그 식민지에서 수많은 전쟁과 혁명을 동반했던 근대 국가 혹은 제국의 형성·발전 과정은 강국들의 보편사 지위 경쟁과 관련되고, 우리는 이를 ‘역사의 공간적 확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나란히 새로운 의미의 역사는 “과거 사건들을 구체적인 역사들로 생각하지 않고 연속적이며 연결된 과정”¹²⁾에 놓인다고 간주한다. 한 걸음

10) Raymond Williams, op. cit., p.146.

11) loc. cit.

더 들어가, 이제 역사는 구체적 개별 사건들에 관한 담화로서 전적으로 과거와만 연결된다는 오래된 전제와 결별하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와도 연결되는 통시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도록 변화한다. 다시 말해 역사는 과거-현재-미래라는 상호 계통적 관계 안에 들어가고, 이론이 미래에 투사하여 신봉자들에게 대의로 상징하여 지시 내리는 현재의 목적, 즉 확정적 미래를 향해 가는 궤도를 깔아 제공한다. 요컨대 역사는 그 목적을 향한 발전 단계에 정합하는 과거 사실들을 수집, 선별, 체계화하는 작업의 결과물로 이해된다. 마침내 미래가 현재를 규정하고, 과거를 취사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관계 안에서 역사적 시간을 지배함에 따라, 역사적 시간은 과거-현재-미래로 질서 정연하게 연결되어 체계화된다. 우리는 이를 연속과 연결을 통한 ‘역사의 시간적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시공간적 확장을 거친 역사는 마침내 현재 목적의 근거로서 추상적 대의, 이념, 가치 실천의 정당화 도구로 복무하고, 또 이를 ‘인류의 자기 발전’이라 과잉 해석하는 강자들이 실제로 더 넓은 지리적 영토 확장의 근거로서 중층 의미화된다.

독일어는 언어적으로 역사를 더 분명히 구분한다. *Historie*가 주로 과거를 가리킬 때 쓰는 반면, *Geschichte*(그리고 연관되는 용어로 *Geschichtsphilosophie*, *역사철학*)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과정을 지칭할 수 있다. 이렇게 논쟁적인 근대적 의미의 역사는 몇 가지 지식 체계를 이용한다. 특히 문명의 진보와 발전에 대한 계몽적 의미, 그리고 헤겔의 주장처럼 세계사적 과정이라는 이상적 의미, 그리고 먼저 프랑스 혁명과 이후 사회주의 운동, 특히 마르크스주의와 연계된 역사적 세력(historical forces—현재 활동적인 그리고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미래를 형성해 갈 과거의 산물로서)에 관한 정치적 의미, 따위를 활용한다.¹³⁾

12) *Ibid.*, p.147.

13) *loc. cit.* 여기서 ‘역사적 세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미래를 담당하는

요컨대 근대의 역사는 계몽주의, 이상주의, 정치이념 등과 같은 새로운 생각들을 활용함으로써, 시간적 미래의 공간(지금 없는 공간: utopia)을 인류가 반드시 이뤄야 하는 필연적인 설계도로 제시했다. 또 이를 교육받은 구성원의 집단적 열망을 해당 공동체의 지리적 제한 너머로 팽창해가는 과정을 보편적인 '인류 문명의 발전'으로 포장한다. 또 근대의 시간관에 가해진 보편적 발전을 위한 연속적 발전의 궤도 같은 구속은 확정적으로 가정된 미래를 위해, 그 미래의 근거가 될 과거와 현재를 선택하여 목적에 맞춰 조작적 배치를 가능하게끔 한다. 이를테면 과거에 근거를 두고 현존하면서 미래라는 목적을 향해 앞서나가는 '역사적 세력'의 생성·발전 과정에 맞도록, 그리고 그들의 시대 선도를 정당하게 설명하도록, 과거와 현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국가 혹은 제국의 역사라는 이야기책이 완성된다.

이론상 '역사적 세력'은 역사 발전을 선봉에서 이끌어가는 주력으로서, 미래도 모르고 역사가 없는 집단을, '교화하고 훈련하여 그들과 함께 번영하는 미래로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명감의 짐을 지게 된다. 계몽된 그들은 보편적 역사 발전의 필연성을 믿는 까닭에 '역사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현재가 그들의 미래임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강제하기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수립된 근대적 우열의 관계 위상은 계몽 지식인과 무지몽매한 대중, 자본가와 노동자, 서양과 동양, 제국과 식민지, 백인과 유색인, 프롤레타리아와 군중, 아리안족과 이민족 등에 적용되었다. '역사적 필연성'은 믿는 자에겐 인류를 위한 목적 실현을 운명적으로 짊어져야 할 의무로 확신케 하는 보증서다. 그 필연성을 교육받은 집단, 사회, 민족, 혹은 인류 따위로 가정되는 '상상의 공동체' 구성원은 '역사 발전 법칙'의 궤도에 자기

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 같은, 각 발전 단계에서 자기 계급의 해방이 곧 체제의 변화를 선도하게 되는 '기본 계급'으로 제시된다. 이 논리를 따른다면, 제국주의 역사의 완성은 백인 부르주아 계급과 이에 동조하는 중산계급, 제3 제국의 역사적 미래는 순종 순혈의 게르만 민족이 각각 책임지게 된다.

들 현재를 억지로 구겨 넣도록 요구받고 대규모로 동원된다. 근대의 세계에서 현재는 늘 미래의 제단 앞에 바치는 제물이 된다. 제국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백인이 짙어지는 역사의 짐과 운명적 사명감은 더욱 무거워지고, 동원되어 역사의 제단에 바쳐져야 하는 개별 존재는 한없이 가벼워진다.

로컬 문화적 조건의 구성적 결과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인간 삶과 경험의 환원 불가능한 특징이 있다는 가정으로서 보편론은, 지배 문화의 경험, 가치, 전망이 모든 인류에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견지함으로써, 존재에 관한 패권적 견해를 제공한다. 이런 근거로 보편론은 제국의 패권에서 중대한 특징이 되는데, 공통적 인류에 관한 가정(혹은 주장)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거나 차이에 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그래서 광대하고 다면적인 식민지 착취를 감추는 목적으로, 피식민지인들의 “발전” 혹은 “향상”을 위한다는 제국 담론을 보급하는 작업의 밑바탕을 이루기 때문이다.¹⁴⁾

보편론의 폭력적 팽창이라 바꿔 부를 수 있는, 근대 역사관의 발전 과정은 역사적 목적 실현을 위해 패권을 장악하는 한편, 패권의 확대와 나란히 역사 없는 사람들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지식적 창조물은 그것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나누게 되고, 패권을 행사하는 가진 자는 갖지 못한 자를 결핍의 존재로서 열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자기의 도대로 동원하고 이용하며,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쓰레기로 폐기함으로써 패권을 강화·확대한다. 드디어 역사는 이상적 미래를 지향하는 “현재의 필요를 채워주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야기를 창작하기 위해 통제되지 않는 과거에 형태를 부여하고 편집하여 조작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살았던 ‘그들’의 초상에서, 그들을 넘어, 훨씬 더 현재

14)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Post-Colonial Studies: The Key Concepts*, New York: Routledge, 2007, p.216.

를 사는 “우리의 관심사들, 우리의 강박들, 우리의 고뇌들, 우리의 권력 투쟁”을 담아내는 “‘우리’의 자화상”¹⁵⁾이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주목할 점은 역사 개념의 재구성 과정에서 이상적인 ‘전망’과 발전의 ‘약속’이라는 담론에 내장된 설득과 공감의 전략인데, 이는 그 담론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역사의 제단에 목숨을 바치는 투사로 나서도록 만들었는지 이해할 열쇠가 될 수 있다. 설득과 공감의 담화 전략은 단순하다. 풍요롭고 정의로운 장밋빛 미래 비전으로 ‘유혹’하는 한편, 구성원들이 적극 받아들고 공감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파멸적 미래가 닥친다고 ‘위협’한다. 이는 현대 서구 문명의 정신적 뿌리로서 기독교가 제국과 함께 팽창하며 구사하는 선교의 언어 패턴, 즉 근대/전근대, 선진/후진 따위를 천국/지옥, 선/악 등과 나란하게 제국하고 학습시켜 이식한다. 현대 광고 언어뿐 아니라 다양한 설득 기법으로 정착한 설득과 공감을 위한 유혹/위협의 담화 전략은 언제나 우월한 공감대로 형성된 ‘우리’를 결속하고 열등하고 무지한 ‘그들’을 포위하는 정치 경제적 지형을 뚜렷하게 그려낸다.

유혹/위협의 담화 전략은, 20세기 들어 점차 그 강도를 더해갔는데, 유색 인종, 적대적 계급, 타 종족, 외세, 비정상인 등의 현존과 도전으로 초래될 파국을 내세우고, 이를 구실로 특정 집단을 역사 발전의 장애물로 싸잡아 제거 대상으로 적대시하는 가운데 내적 동력을 확보하고 키운다. 그런 언어 전략의 근대적 활용은 제도교육, 정치 광고, 대중 집회 등 위력적 체계에 적용되었고, 영화와 라디오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해 다중을 선동하고 거의 실시간 파급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 청결/병균, 건강/질병을 강조하는 위생 담론과 백인종/유색 인종, 순종/잡종, 정상/비정상에 집착하는 우생학 등이 가세하면 하위 범주의 청소 혹은 박멸을 선동하며 더욱 폭력적

15) Jonathan Gottschall, *The Story Paradox*, New York: Basic Books, 2021, p.133.

으로 변신한다. 특히 오웰 시대에 수많은 근대적 지식인을 매료시키며 유행했던 최첨단 이론으로서 파시즘은 제국주의 및 사회주의와 경쟁하면서 더욱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런 역사 개념의 재구성과 역사적 필연성의 실천이 혁명과 내전, 그리고 제국주의 전쟁들과 대량학살 따위로 이어지던 20세기 초반 장구한 과정을 원자폭탄으로 마감하도록 유도했다. 오웰은 이렇게 현실화된 디스토피아를 낳고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권력의 슬로건을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¹⁶⁾고 정리한다.

추상적 관념과 그것이 지시하는 미래 비전을 맹신하는 동시대 분위기와 달리, 현장과 현재라는 시공간에 발을 디딘 오웰의 관점과 글쓰기는 이념 혹은 이론이 유혹/위협하는 전망과 약속 담화에 좀처럼 현혹되지 않는 특징을 드러낸다. 대영제국에서 시대의 역사를 선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거부한 오웰의 눈은 역사 없는 ‘그들’을 주목했고, ‘그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세계를 보고자 노력했다. 다음 장에서 더 논하겠지만, 그가 이런 견지에 도달하기 위해 출발하는 계기는 버마에서 겪은 제국주의 이념/현실과 관련한 환멸에서 비롯되었다. 미개한 지역에 발전된 문명을 이식해준다는 은혜로운 꿈같은 이념과 억압·약탈·착취의 현실이 따로 노는 현장 경험과 확인은 작가를 꿈꿨던 오웰에게 허황한 정치적 주장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현장에서 진실 찾기가 글쓰기의 중요한 필수 요건이 됨을 교훈으로 남겼던 것 같다. 인도 제국 경찰 생활 이전까지 하층민에 별 관심 없었던 오웰은 귀국 후 유난히 눈에 많이 띄는 영국의 저임금 노동자나 실업자들을 강요된 노예 같은 생활로 고통받는 버마인과 수평 위치에 놓고 보게 되었다. 그렇게 나선 첫걸음이 바로 유럽 현대문명의 중심, 파리와 런던의 그늘진 현장 체험이라는 고난을 통해 가난과 빈민, 저임금 노동자, 실업자, 부랑인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일이었다.

16) George Orwell, *Nineteen Eight-Four*,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7, p.34.

『파리와 런던』은 문명사회와 달리 위장과 가식이 지배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자기들 본성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원초적 삶이 자기들 특유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오웰은 밑바닥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의도가 “단순한 호기심에서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빈민가는 먼저 가난의 구체적 본보기 교육이고, 다음으로 내 자신 경험의 배경을 이뤘다.”¹⁷⁾면서, 그 현장이 바로 자기 글의 고향 같은 장소임을 밝힌다. 지나칠 정도로 사실에 집착하는 그의 다른 작품들 곳곳에 등장하는 실업자, 일용직 노동자, 부랑인들도 모두 직접 경험한 현장에서 교류한 사람들이라 봐도 무방하다. 오웰은 세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 힘이 육체노동을 하는 그들의 단순한 생각과 행동이라 굳게 믿는다. 그 믿음은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만약 희망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프롤들에게 있다. 무시당하면서 모여 사는 오로지 그들 무리에서만 ... 늘 힘이 생성되기 때문”¹⁸⁾이라는 윈스턴(Winston) 주장의 배경이 된다.

『파리와 런던』은 전망과 약속 담화가 왜곡하는 현실과 몸으로 부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리에서 그들 공동체에 깃든 삶과 생각과 언어의 나눔을 통해 인간적 삶의 중심을 관통하는 진실을 캐내는 일이 자기 글쓰기의 과제라는 생각을 노출한다. 오웰의 관점은 언제나 문제의 사안이 일어나는 공간적 ‘현장’과 시간적 ‘현재’에서 설정되는 원점에서 구성된다. 그렇다면 오웰 글쓰기의 원점으로서 빈민 공동체에 대한 그의 설명을 더욱 뚜렷하게 윤곽 잡기 위해서, 왜, 어떤 생각으로 거기에 가게 되었는가, 이해할 필요가 생긴다. 오웰은 4년 후인 1937년 출판된 『위건 부두』에서 중산계급으로서 자기 성장 과정과 노동계급을 향하게 되는 여정의 이유와 근거를 산발적으로 제공한다. 두 책을 교차하면서 버마, 파리, 런던으로 이어지는 그 여정과 의미를 살펴보자.

17) George Orwell, *DOPL*. p.5.

18) George Orwell, *NEF*. p.69.

3. 역사 없는 사람들에게로 가는 여정

근대 유럽 백인종에게 ‘역사 없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다. 인류 문명사의 미래를 주도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에 투철하여 백인종의 대표로 나선 엘리트와 추종자에게 국내 무지렁이들뿐만 아니라 비유럽 유색 인종들이 바로 전근대적인 역사 없는 사람들이었다. 역사적 세력으로서 이미 계몽된 그들에게 계몽의 대상, 즉 인습과 미개의 상태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미래는, 바로 이미 역사적 선진의 위치에 도달한 백인종의 현재 위상이다. 그들은 역사적 시간표 위에 인종·지역별 줄 세우기를 한 다음, 자기들 필요에 따라 임의로 끄트머리 잘라내기를 실행한다. 이를테면 그들의 통제와 지도에 순종하는 자는 역사 발전의 일꾼이 되고, 나머지 불량 혹은 불순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의 장애물로서 저주의 대상이 된다. 오웰 자신도 이런 교육을 받고 전 세계 지식인이 열광하는 근대 이성적 사고의 위대한 결과물인 이념이나 이론이 뒤흔들고 지배하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이끌던 거대한 역사의 흐름 한가운데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어떻게 그 흐름에서 빠져나와 거슬러가게 되었을까? 오히려 그는 그 역사적 흐름 자체를 역행이라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어쨌든 그 결정적 전환의 계기는 바로 그가 인도제국 경찰의 하급 관리로서 경험한 식민지 버마 생활이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공무원 집안의 아들로 인도에서 태어나 영국의 중산계급으로 성장했던 오웰은 왕실 장학금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은 ‘대영제국의 아들’로서 식민지 버마에서 제국의 수호자로 복무했다. 그가 속한 ‘상류 중산층(upper-middle class)’은 “1880년대와 1890년대에 처음 생겨나 키플링을 계관시인으로 삼는 계급으로, 빅토리아 시대의 번영기가 퇴조하면서 한 무더기 잔해만 남은”¹⁹⁾ 신사 계급이었다. 시기적으로는 1차대전 당시 무작정 애국심과 참전을 부추겨 어처

구니없게도 근 백만 명의 영국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기성세대에 대한 거센 반항의 분위기와 청년세대의 열정을 들끓게 했던 러시아 혁명의 영향이 넘쳐흐르던 시기였던 한편, 상실하기 시작한 선도적 제국 지위를 붙잡기 위해 영국이 조바심내던 시기이기도 했다. 오웰은 군국주의적 교육과 은퇴한 아버지의 엄격한 가정교육과 강한 국가관으로 훈육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 흠모했던 작가 키플링처럼 ‘백인의 짐’을 지고, 똑같이 인도 태생인 그의 행로를 따라서, 자기가 태어났던 식민지 세계를 탐험하는 흥미진진한 글을 쓰고자 했을 수도 있다.²⁰⁾

그렇지만 책에서 읽고 감동하며 훈육 받았던 내용의 제국과 식민지 현실은 전혀 달랐다. 현장 제국주의는 노골적으로 원주민을 억압·착취하며(「국가는 어떻게 착취되는가: 버마에서의 대영제국(“How a Nation is Exploited: The British Empire in Burma”)」),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교수형(“A Hanging”)」), ‘영국인 나라들’은 원주민과 인간적 관계가 원천 차단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고립 포위되는(「코끼리를 쏘다(“Shooting an Elephant”)」) 경험이 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 내용은 첫 소설 『버마 시절』에서 구체적 현실로 종합된다. 작품에서 오웰의 페르소나로 등장하는 주인공 플로리(Flory)는 피식민지인의 착취와 억압 장치로서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백인의 식민지 생활에 적응하지도, 저항하지도 못하고 방황한다. 그는 자신의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영국인들 사이에서까지 거의 완벽한 외톨이로 전락하자, 결국 식민지에서 적지 않은 수의 젊은 영국인들처럼 자살한다.

『위건 부두』에서 오웰은 버마 생활을 회고하며, 그 ‘헛된 5년’이 자기가

19) George Orwell, *Road to Wigan Pier*, London: Penguin, p.113.

20) George Orwell, “Rudyard Kipling.” George Orwell, *Essays*. London: Penguin, 1994. pp. 203~215. 이 글은 오웰이 러디어드 키플링의 제국주의 언행을 비판하지만, 20세기 무원칙한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이념적 진정성을 함께 해명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애증을 드러냄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오웰 이해에 도움이 될 단서들을 제공하는 흥미로운 에세이다.

“받들어오던 제국주의에 딱히 뭐라 설명하기 힘든 염증”²¹⁾에 시달리게 했고, 남긴 것이라곤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뿐이었음을 토로한다. 1927년 첫 휴가로 귀국한 그는 먼저 ‘독재 체제 부속품’으로서 자기 역할을 청산했다. 그랬다고 버마인에 대한 죄책감까지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는 식민지 억압 체제와 식민 모국 영국의 억압 체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해하게 됐다. 실제로 둘의 구분은 이론적 담론의 차이일 뿐, 국가 체제의 번영과 발전을 구실로 국내 노동 착취와 좀 더 강도 높은 해외 자원과 이윤의 안정적 탈취·확보를 위한 제국주의 정책의 양면이었다. 자본주의는 국내에서 ‘전근대적인’ 지방을 식민지로 삼아 ‘인간 이하의 더러운 아랫것들’인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그 행정적 관리와 억압·통제의 기술을 해외로 확장·이식하여 ‘야만적인’ 약소국을 식민지 체제로 제멋대로 개조했다. 오웰은 “버마에서 버마인들이 당하는 역할을 영국에서 하고” 있다는 유사성에 주목하고, 체제의 “불의에 당면하는 상징적 희생자”²²⁾로서 노동계급을 처음 인식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제국의 발전이라는 역사 과정의 부산물로서 관심사 범위 바깥으로 추방되는 영국의 저임금 노동자, 실업자, 부랑인 등을 새로운 시선으로 재발견했다.

오웰이 버마에서 돌아온 1927년은 1차대전 이후 짧은 호황이 끝나고 쇠락해가던 대영제국의 만성적 경기 불안, 실업자 양산, 그리고 이어서 전 세계를 강타할 경제 대공황이 그 차례를 기다리던 시기였다. 영국은 5년 전 출국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동네에서 실업자들이 어렵지 않게 그의 눈에 목격됐다. 그런데 그는 일터에서 느닷없이 밀려난 실업자들이 당면하는 사회적 시선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감지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여론 주도층은 가난한 실직자들을 “게으른 밥벌레”나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삶을 “조직적 구걸 행위”²³⁾ 따위로 공격했다. 그는 사회가 빈곤을 향해 퍼붓는 여론 공세와

21) George Orwell, *RWP*, p.134.

22) *Ibid.*, p.138.

조작, 그리고 실업자들에게 덧씌우는 모멸감에 주목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실직자 중 많은 사람이 실직을 ‘수치스러워’ 한다는 사실”²⁴⁾이라고 지적하는 오웰은 실업과 빈곤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고 당사자들마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분위기에 놀랐다. “평생토록 꾸준히 일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길바닥에 내쫓기는 착실한 노동자의 끔찍한 운명, 이해할 수 없는 경제 법칙 때문에 그가 겪는 모진 고통, 가족의 해체, 마음을 갇아먹는 수치심”²⁵⁾으로 연결되는 사회 현상을 오웰은 이해하지도 용납하지도 못했다.

오웰은, 버마인에 대한 죄책감이 짓누르는 무게에서 벗어날 ‘속죄의 길’을 찾는 동시에, 영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잘못된 사실을 글을 써 알리기 위해, 문명사회의 ‘버마인’들이 겪는 삶의 조건으로서 가난과 가난한 삶, 그리고 가난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이해할 필요를 느꼈다. 노동계급과 가난에 관한 공부 방법을 숙고하고 파리와 런던의 ‘학교’로 입학할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 “이를테면 어떻게 모든 걸 팔아버리고, 가진 걸 어떻게 다 버리며, 어떻게 이름을 바꾸고, 입고 있는 옷 말고는 아무것도, 돈 한 푼도 없이 어떤 식으로 새 출발을 할지, 꼼꼼하게 해야 했다.”²⁶⁾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신분 높은 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길을 찾는 것”²⁷⁾이었다. 속죄와 더불어 기득권이 될 가능성으로서 특권 의식, 속물근성 등과 같은 계급적 기반에서 철저히 벗어나기 위한 수련장으로서, 오웰은 문명 세계의 그늘진 삶의 현장을 선택했다.

(전략) 내 자신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 억압받는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어졌다. 그들 중 하나가 되어 그들 편에서 압제에 맞서고 싶어졌

23) *Ibid.*, p.124.

24) *Ibid.*, p.78.

25) *Ibid.*, p.139.

26) *Ibid.*, p.140.

27) *Ibid.*, pp.139~140.

다. 모든 걸 혼자서만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압제에 대한 증오심을 유난히 길게 끌고 갈 수 있었다. 당시에는 실패만이 유일한 미덕처럼 보였다. 조금이라도 자기 발전을 생각한다면, (중략) 비열한 짓 같았다.²⁸⁾

이 대목과 『버마 시절』을 연결해 본다면, 맥락상 플로리의 자살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오웰이 자기 삶을 둘로 나뉘, 앞부분에서 자기가 받들던 제국주의 영국과의 가차 없는 단절과 뒷부분부터 영국 중산계급의 삶, 생각, 언어까지도 거부하겠다는 결의를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 프롤레타리아 형제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산층 지식인인] 우리에게 환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살을 요구하는 것,²⁹⁾이라는 말도 바로 이런 문맥에 닿아 있다. 그 변곡점은 제국 경찰 사직이었고, 이후 다른 삶이 시작됐다. 그러나 중산층 출신으로서 그의 이런 행위와 글쓰기 시도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동료 지인이나 지식인 누구와 의논할 문제가 아니어서, 오웰은 ‘혼자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에 돌아와서도 그는 외톨이였던 셈이다. 계급 지배가 강한 사회에서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고독한 길은 일반에 유통되는 여론이나 지식에 동화되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 때문에 중산층의 분위기에 맡겨들지 않고 ‘압제에 대한 증오심을 유난히 길게 끌고’ 갔다. 그렇게 조성된 인간적 고립과 고독은 특히 비타협적인 글쓰기 태도와 자유로운 스타일로 관행과 관례를 숭배하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문학적 독창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현장에서 생산되는 그의 논리는 거의 독보적이어서 항상 공론의 장에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수렴되지 않는 식으로 전개되는 까닭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불신을 불렀고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 “당신이 부랑인들과 어울렸다지만 그들이 당신을 정말 자기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받아들인 건 아

28) *Ibid.*, p.138.

29) *Ibid.*, p.157.

니지 않은가?” 혹은 “당신이 다르다는 걸, 악센트부터 다르다는 걸 그들이 알지 않는가?” 아니면, “그런다고 계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같은 빈 정거리는 입방아에 노출되기 마련이었다.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고 주변만 맴돌다, 가난이 어찌니 이러쿵저러쿵, 아무도 모르니 그냥 아는 척하는 글을 쓰고 다닌다는 비아냥인 셈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랑자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계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껏해야 자신의 계급적 편견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을 뿐”이라면서, 오히려 자기 의도가 그렇게 농담 던지는 중산층의 편견과 속물근성을 지우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오웰은 그들의 문제 제기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과 동등한 사이가 되는 일은 왜 그리 쉬울까?”³⁰⁾ 반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내막을 소개한다.

(전략) 그들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누가 지금 그들과 마찬가지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느냐이다. 그리고 그런 세계에서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태도는 예의가 아니다. 만약 원한다면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고, 대부분 부랑인은 아주 사소한 이견이 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곧잘 꺼내지만, 반드시 그런 걸 말해야 하는 강제도 전혀 없으며, 무슨 얘기든 묻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다. (중략) 일단 그 세계에 들어가거나 그 일부가 된 듯하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는 거의 문제 되지 않는다. (하략)³¹⁾

이 대목에서 주목할 점은 밑바닥 삶의 세계관이다. 그들에게는 현재의 동등한 관계가 중요하지, 서로 눈치 보며 경계하는 중산층들의 예의와 추상적인 규범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산층이 추상적 가치의 세계에 근거를 두는 규범의 집단이라면, 밑바닥 사람들은 구체적 삶의 현장을 즐

30) *Ibid.*, p.144.

31) *Ibid.*, p.144.

겉고 풍요로운 토대로 만들고자 상부상조하는 현대의 윤리 집단이다. 밀바닥에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거나 ‘타인에게도 강제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일반 잣대가 없다. 오웰이 경험한 밀바닥 사람들은 대체로 근대인에게 허구의 미래를 선물한 역사의 세례도 받지 못했고, 역사적으로 사 고할 줄 모른다. 그러나 대상이 사회이든 개인이든 그 과거나 미래가 자기 들의 터전을 침범할 때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까닭에, 과거나 미래가 자기 들 삶과 인간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들 공동체의 어울림은 즐거움 을 위해서든 생존을 위해서든 오로지 현재에 집중한다. 특히 부랑인들의 경우, 그것은 언제나 우연히 만나고 또 헤어지는 생존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중산층이 자기 삶과 괴리된 관념으로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 로 살아간다면, 밀바닥 사람들은 살림살이 터전에 발을 디디고 있다. 수년 에 걸친 오웰의 여정에서 중요한 점은 파리와 런던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 가 작가로서 새로운 시작의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들의 세계관이 그의 관점에 상당히 배어들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영향이란 일방적일 수만은 없고, 수용자에게 그런 내용과 관련한 내적 수용 자질이 전혀 없다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오웰의 그런 자질은 마을을 자기네 소우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버마인을 설명하면서 도 비슷한 면모를 무의식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파리 생활 중 프랑스 잡지 에 기고한 한 에세이에서 “논밭에서 평화롭게 농사짓도록만 해주면, 그들 은 자신의 주인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하지 않는다”³²⁾는 가난한 농민 들의 심성을 소개한다. 물론 그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지적하는 언급이지 만, 최고 지식인인 승려들과 소통할 정도로 버마어에 능통했다고 알려진 오웰은 『버마 시절』에서 토착민들 삶과 지혜를 여러 차례 언급하는가 하 면, 버마의 밀바닥 삶들의 전통문화, 예술, 정서, 그리고 심지어 전통 의료

32) George Orwell, “How a Nation is Exploited: The British Empire in Burma”, 박경서 옮김, 『영국식 살인의 쇠퇴』, 서울: 은행나무, 2014. 51쪽.

와 관습까지 구체적으로 꿰뚫고 있음을 드러낸다. 식민지 삶의 고통스러운 조건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항상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준비해야 하는 근대적 삶에 길든 그에게, 이제 그런 상시적 걱정·불안·공포가 인생의 낭비라고 느끼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노동이 있고 굶어 죽지 않을 식량이 있다. 불필요하게 뭘 걱정하겠는가?”³³⁾

이런 경험적 토대 위에서 진행된 가난 체험은 그에게 밑바닥 삶의 세계관 깊숙한 곳으로 접근하여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길을 냈던 것 같다. 파리에서 거의 굶주리며 지내는 ‘하루 6프랑의 삶(life on 6 francs a day)’으로의 전략은 어쩌면 별거벗은 삶의 본질을 확인케 하는 창을 제공했다. 이제 가난이 자신의 처지가 되었다. 처지가 바뀌니 다른 면모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는 가난이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주 복잡하고 지저분할 따름임을 알게 됐다. “가난은 사람들을 복잡 미묘한 비열함, 음식 찌꺼기 닦아 먹기 따위의 천박함으로 몰아넣는다.” 그런 삶에 적응하기까지 심리적 타격도 있다. 평상시대로 사는 것처럼 꾸며야 한다는 압박감이다. 이를테면 세탁소에 못 가고, 담배 가게엔 뜸하게 가며, 식사는 외식하는 듯 나갔다가 공원을 배회한 후 빵 조각을 숨겨 들어와 마가린 발라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운다. “마가린 바른 빵으로 일주일만이라도 버텨본 사람이라면, 그는 그저 장식용 신체 기관 몇 개를 뱃속에 달고 있을 뿐이지, 더는 인간이 아니다.”³⁴⁾ 한마디로 구질구질하게 뒤죽박죽 ‘거짓의 그물망(net of lies)’에 엉켜든다.

그렇지만 가난과 분리할 수 없는 권태는 인간 존재와 삶을 뒤집어 응시하게 한다. 권태와 비열함과 배고픔은 그에게 “돈이 사람들을 노동에서 자유롭게 하듯이, 가난은 그들을 일반적 행위 규범에서 해방시킨다.”³⁵⁾는 점을 깨닫게 한다. 또 다른 느낌이 있는데, “가난에는 커다란 위안이 있다. . . .

33) 위의 글, 53쪽.

34) George Orwell, *DOPL*, p.16.

35) *Ibid.*, p.3.

그것은 자신이 결국 진짜 밑바닥 처지임을 깨달음으로써 갖게 되는 거의 쾌락 같은, 안도감이다. . . . 그 상태는 수많은 걱정을 벗겨낸다.”³⁶⁾ 거기서의 깨달음은 그저 거리 두고 관찰하거나 같은 동네 살며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이를 수 있는 경지는 아니다.

가난이 제공하는 대단히 보상적인 특징 또한 발견한다. 즉, 가난은 미래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돈을 더 적게 가질수록 덜 걱정한다는 말이 실제로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세상에, 당신이 100프랑을 가졌다고 해보라, 엄청나게 겁내며 허둥대기 쉬울 것이다. 그런데 겨우 3프랑을 가졌다면, 아예 무관심이다. 3프랑이 내일까지 당신을 먹여 줄 것이고, 당신은 그 이상을 더 생각할 수 없는 까닭이다. 당신은 그런 생활이 지겹기는 하지만, 두려울 것 없다.³⁷⁾

자산이 있는 자는 그 상실을 걱정하고, 명예가 있는 자는 불명예로의 전락을 불안해하며, 역사가 있는 자는 담보와 퇴보를 두려워하고, 국가가 있는 자는 그 패망에 공포를 느낀다. 현대인으로서 그/그녀는 오로지 그 뭔가를 지키기 위해 자기들 현재를 바치고 희생하도록 요구받는다. 영광스러운 미래라는 집단적으로 구상하는 이상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규범을 세우고 또 지켜야 한다. 나아가 그 목적을 향한 ‘위대한 행렬’의 이탈자나 방해자의 발언과 행동에 간섭하고, 그 행렬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육하며 심지어 강제로 이끌고자 하는 강박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지킬 것 없는 사람들의 관점에서선 자산, 명예, 역사, 국가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거나 아무 실체가 없다. 그들 눈으로 본다면, 뭔가를 지키기 위해 맹렬히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풍차와 싸우는 돈키호테와 다를 바 없다.

36) *Ibid.*, p.18.

37) *Ibid.*, pp.17~18.

언제나 실체가 있는 ‘현재’에 터를 잡는 사람은 지금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미래의 걱정·두려움·공포에서 해방된다.

버마에서 런던의 부랑인 임시수용소까지 길게 잡아 8년여 체험적 여정을 거쳐 오웰은 이제 거의 완전한 밑바닥 삶과 생각과 언어를 체득하는 경지에 도달했다. 실제로 32장에서 그는 밑바닥 삶을 반영하는 은어, 사투리, 비속어 따위를 설명하고, 일상어와의 관계, 비속어 사용에서 프랑스와의 차이점 따위를 분석하기도 한다. 어쨌든 그 여정은 길지 않은 생애 동안 진행된 현장 중심의 체험적 삶과 글쓰기의 배경을 이룬다. 자기 몸에 밴 속물근성이라는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건 부랑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부터”³⁸⁾였다는, 오웰은 ‘중산층의 병’은 “일종의 이상주의와 결부되어 있다.”³⁹⁾고 고백한다. 오웰의 체험적 밑바닥 삶의 성과는 그 이상주의에서 해방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현장에서 그들의 생활방식과 공동체를 알게 되는 공부이자 새로운 차원에서의 발견이었다. 화려한 문명의 그늘, 어둠에 가려진 그들의 세계가 어떠한지 오웰은 그곳을 자기 글쓰기의 원점으로 삼게 되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4. 역사 없는 사람들의 세계

『파리와 런던』을 통해 가장 눈길을 끄는 두 장소는 역사 없는 사람들의 밑바닥 공동체 모습을 모범적으로 구현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고달픈 삶을 버티면서도 서로 인간애를 나누는 목적 없는, 미래 없는, 현재의 생존 공동체를 이룬다. 파리의 떠돌이 노동자들이 머무는 허물어질 듯한 5층 여관 건물 아래 조그만 반지하 술집(bistro)과 런던의 집 없는 일용노동자들

38) George Orwell, *RWP*, p.122.

39) *Ibid.*, p.123.

이 머무는 곳 중 하나인 간이 숙소(lodging-house) 풍경이다. 그곳 등장인물들은 문명 세계의 온갖 자투리 일거리를 해내며 생존을 위협하는 저임금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네 삶을 유쾌하고 행복하게 바꿔내거나, 서로 협력하여 낙오자가 없도록 지켜주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준다. 거기서는 명령으로 지시하는 도덕적 관념이나 법질서가 아니라 몸으로 실행하는 본능적 윤리와 상호부조의 생존 지혜가 제약 없이 발휘된다. 오웰이 관념적 논리가 아니라 현장과 현재를 자기 관점의 원점으로 자리 잡게 되는 배경에는 이런 삶의 체험적 공감을 통해 나름 깨달은 인간 공동체 본연의 모습이 바탕으로 깔린 것 같다.

어쩌면 오웰의 체험적 공감의 정서적 배경은 훨씬 이전에 이미 싹트고 있었다, 볼 수도 있다. 그는 여섯 살 때 처음으로 계급 차별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어린 시절 오웰은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 모두 그들이 하는 듯했기 때문에, 나의 영웅은 주로 노동계급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지만, 집안에서는 그가 “상스러운 악센트를 배우며 자라는 상황을 용납” 못하기 때문에, 같은 동네 “배관공 집 아이들과 노는 게 금지”됐다. 자기 같은 중산층 집안 출신의 모든 아이는, 이후 교육 과정에서 “평민”은 거의 인간 이하의 존재⁴⁰⁾로 각인되며 성장했다고 밝힌다. 그랬던 그가 “우리 시대가 살기에 전적으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음을 일깨워주는 것은” 제국과 중산층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근대 기술의 승리도, 라디오도, 영화도 아니”라면서, “그것은 참으로 묘하게도 내 기억에 남은 노동계급 가정의 거실 풍경이며, 특히 아직 영국의 번영기이던 전쟁 이전 내 어린 시절 이따금 보았던 정경들”⁴¹⁾이라고 공개적으로 떠올린다. 어린 시절 기억의 소환 배경에는 역시 밑바닥 삶으로의 여정과 경험이 있고, 더욱 성숙한 단계에서 내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40) *Ibid.*, p.117.

41) *Ibid.*, p.109.

물론 오웰도 모든 노동계급 가정이 이상적이라 할 수 없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만약 가볼 수만 있다면 일반 노동계급 집에선 “배울 것이 아주 많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전제하면서, 타인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꽤 쉬운 편”이란 분위기를 알려준다. 여기서 자신도 체험했듯이 “정말 중요한 것은 중산층의 이상과 편견이란 게, 꼭 더 좋은 건 아니어도 확실히 다른 판 계급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⁴²⁾을 강조한다. 그러나 중산층은 “아랫것들은 냄새가 나”⁴³⁾ 같은 표식을 붙여가며 노동계급과 자기네를 분리하기에 급급하다. 이는 중산층의 이상과 편견이 인간 본성과 동떨어져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있는지 오웰 자신이 느끼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야기일 터이다. 지배 계급이 이상을 지향하고 또 편견을 지킴으로써 같은 계층 내에서 집단적 소속감을 고취하고 사회적으로 목에 힘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전통이나 미래의 이상에 근거를 두는 추상적 가치의 잣대에 인간 삶을 억지로 끼워 넣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웰은 계속해서 곱씹는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의 다른 점을 예로 들어보자. 노동계급 가족은 중산층 가족과 마찬가지로 결속하지만, 그 관계는 훨씬 덜 억압적이다. 노동자에게는 땀처럼 목에 걸고 다니는 가문의 위신이라는 끔찍한 짐이 없다. (중략) 노동계급의 또 다른 특징은, 처음이라면 좀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등하다 여기는 상대라면 누구에게나 꾸밈없이 말한다는 점이다. (중략) ‘교육’을 향한 노동계급의 태도를 살펴보자. 그것이 얼마나 우리와 다르고, 또 얼마나 더 건전한가! 노동계급은 누군가 배웠다면 은근한 존경심을 표하곤 하지만, 그 ‘교육’이 자기들 삶을 건드리면 건강한 본능(healthy instinct)으로 그걸 꿰뚫어 보고 거부한다. (중략) [14살이 넘는 청년들은] 역사니 지리니 같은 알곳은 쓰레기

42) *Ibid.*, p.106.

43) *Ibid.*, p.119.

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짜 일하기를 바란다. (중략) 노동계급 시각으로 보면 중산층 삶은 대체로 병적이고 무기력하다.⁴⁴⁾

오웰은 ‘건강한 본능’에서 발원하는 노동계급의 심성이 조성하는 공동체적 삶과 인간관계의 건전한 모습에 주목했다. “실업 상태가 아닌 비교적 살만한 노동계급 가정에서는 다른 데서 보기 쉽지 않은 따뜻하고 품위 있고 진짜 인간적인 공기를 숨 쉬며 산다,”고 하는 현장 보고를 뒤집어본다면, ‘가문의 위신이라는 끔찍한 짐’을 목에 걸고 다니는 중산층 가정에서는 아마도 경험하거나 꿈꾸기조차 힘든 풍경일지 모른다. 그래서 “갈수록 그러기 힘들긴 하지만 일거리가 꾸준하고 별이가 괜찮다면, 육체노동자가 ‘교육받은’ 사람보다 행복할 가능성은 더 크다.”⁴⁵⁾고 단언한다. 어린 시절 노동계급 가정에 관한 기억과 영국 북부 탄광지대 노동자 집안 풍경에 대한 묘사를 종합하면, 오웰이 억압적 분위기 자체를 거부하는 기질을 타고난 것으로도 보인다. 이 같은 어린 시절 기억과 식민지 경험을 바탕으로 블레어에서 새로 태어나려 했던 오웰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견지에서 첫 작품을 경험하고 또 집필하면서,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더욱 명료하게 확인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동감 넘치게 묘사한다.

『파리와 런던』은 시끌벅적한 다툼 소리가 아침 7시 파리의 잠든 골목을 깨우는 장면 묘사로 시작한다. 누추한 콕도르 거리(Rue Du Coq d'Or)는 주로 외국인 뜨내기들이 투숙하는 싸구려 여관들이 즐비한 “대표적인 파리 빈민가”였다. 오웰은 그 시점까지 1년 반 정도 거기 머물고 있었다. 자유로운 영혼들의 파리 빈민촌은 말 그대로 ‘별난 사람들의 집합소’였다. 그가 묵는 트루아 무아노 여관(Hotel des Trois Moineaux, 세 마리 참새 여관)은 “5층 건물인데, 아주 어두웠고, 나무 칸막이에 40개 방으로 나뉜 무너질 듯 삐걱

44) *Ibid.*, pp.106~107.

45) *Ibid.*, p.108.

대는 사육장”⁴⁶⁾ 같았다. 그 건물 맨 아래층에는 그가 그곳 사람들과 교류하는 장소, 술집이 있었다.

파리의 1년 반 정도 생활은, 버마에서 조금씩 모아두었던 목돈과 영어 교습 덕택에 그곳 밀바닥 거주자들과 교류하며 가끔 잡지에 투고도 하며 습작을 해나가며, 여유롭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묵던 여관에 도둑이 들어, 가진 돈을 거의 털리고, 얼마 후 영어 교습까지 중단되자, 오웰은 출지에 가난의 관찰자에서 밀바닥 삶의 일원이 되어 본격적인 가난 체험을 시작하게 된다. 의도하지 않은 가난 체험도 체험이지만, 그에겐 당장 굶주림에서는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가 됐다. 연이어서는 구직 실패 끝에, 먼저 취업한 러시아인 친구의 소개로 대형 호텔 접시닻이 생활을 시작했다. 접시닻이로 취업하기까지 6주 정도 이어지는 ‘하루 6프랑의 삶’으로는 술집은커녕 아예 먹을 것 살 돈도 모자랐고, 동네 사람들과의 교류마저 모두 끊어졌다. 그나마 별이가 시작된 접시닻이 취업부터 파리를 떠날 때까지 두세 달 정도는 하루 11시간에서 14시간 살인적인 노동을 마치면 녹초가 되었기 때문에, 토요일만 늦은 밤부터 주점의 축제 현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나마 일요일은 마음 놓고 잘 수 있는 까닭이었다.

“이 구역의 삶. 이를테면 세 마리 참새 여관 맨 아래층에 있는 우리들의 주점. 와인에 흠뻑 물든 탁자들, ‘위세 꺾이다(*Crédit est mort*)’라고 새겨진 장례식 사진이 걸린 반지하 작은 벽돌 바닥의 공간”은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에서 온 일용노동자들이 숨 쉴 새 없는 고달픈 노동 이후, 함께 어울려 피로를 씻으며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숨통이다. “나는 런던에서 사람들이 이만큼 유쾌한 술집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오웰에겐 이 술집이 “저녁마다 여관 사람들 절반은 만나곤 했던”⁴⁷⁾ 일종의 밀바닥 사람들과 소통하는 아지트였다. ‘저녁마다’라는 말에서 그 주점은, 본격적으로 가난 체

46) George Orwell, *DOPL*, p.2.

47) *Ibid.*, p.6.

힘이 시작되기까지 1년 반 동안, 그의 하루가 마무리되는 장소였음도 짐작할 수 있다.

벽돌 바닥 15평방 피트 공간은 스무 명 정도 사람들로 채워지고 온통 담배 연기로 흐릿했다. 저마다 자기 최고 목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소음으로 귀가 멀 지경이었다. 때로는 목소리들이 뒤엉켜 혼란스럽게 떠다니고, 때로는 ‘마르세예즈’, ‘인터내셔널’, ‘마들롱(Madelon)’, 혹은 ‘딸기와 산딸기(Les Fraises et les Framboises)’ 따위를 갑자기 한목소리로 모두 함께 터뜨렸다. 유리 공장에서 하루 14시간 일하는 엄청 덩치 큰 농부 출신 아가씨 아자야(Azaya)는 “찰스톤은 춤추다 바지를 잃어버렸네”라는 가사의 노래를 불렀다. (중략) 사람들은 술내기 다트와 주사위 게임을 했다. (중략) 우리 모두 세상이 좋은 곳이며 우리가 주목할만한 사람들이라고 압도적으로 확신하는 표정을 지으며 아주 행복했다.”⁴⁸⁾

이곳을 오래 들락날락했던 만큼, 오웰은 주점의 다양한 괴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상세히 설명한다. 양 무릎을 묶고 벨리댄스를 추는 깡마르고 고집센 미덕의 검은 머리 코르시카계 아가씨 마리네트, 마담에게 줄라 얻어낸 술을 마시며 예전에 자기들을 속여먹은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서성대는 늙은 루지에 부부, 조용히 술만 마시는 창백하고 말 없는 R., 반쯤 춤추고 반쯤 비틀거리면서도 통통한 손으로 술잔의 균형을 잡으며 여성들의 가슴을 꼬집고 시를 낭랑하게 읊어대는 취한 찰리, 아가씨들을 판매대로 당겨서 배에 주사위 통을 대고 흔들며 운수를 봐주는 스페인 사람 마누엘, 모든 사내가 수작을 걸기 때문에 늘 바쁜 채하는 마담 F.와 구석에서 시럽을 나눠 마시는 거구의 벽돌공 루이의 두 사생아, 그리고 제정신일 때 공산주의자이지만 토요일마다 술만 취하면 격렬한 애국주의자로 변신해서 광적인 쇼비니스트 연설을 단어 하나까지 똑같이 토해내며 모두의 박수와

48) *Ibid.*, pp.97~98.

환호를 이끄는 금발에 붉은 얼굴의 석공 뿔레까지, 주점의 등장인물 거의 모두를 그린다. 오웰은 그곳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가난한 삶의 정서에 대한 애착의 표현으로 그 작은 공동체에 ‘그들(They)’이 아니라 ‘우리(We)’라는 단어를 써서 공감대를 숨기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망각과 위안을 제공하던 행복한 기분의 진통 효과는 잦아들고, “새벽 1시 반이 되면 두통 이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즐거움의 마지막 방울마저 증발했다. 우리는 멋진 세상의 멋진 주민이 아니라 점차 누추하고 우울하게 취한 저임금 노동자 집단임을 각성”하고 각자 여관방으로 돌아가 “침대로 기어올랐고, 반쯤 벗은 채로 누워서 10시간 동안 잤다.” 토요일 밤은 대체로 이런 식이고, “전체적으로 완벽하고 거리낌 없이 행복했던 두 시간은 이어지는 두통을 감당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았다. 비혼에다 구상할 미래조차 없는 이 구역 많은 이에게 매주 벌어지는 술판은 인생을 살만하게 해주는 유일한 행사”⁴⁹⁾였다. 노동이 고달팠던 만큼, 토요일 밤 ‘완벽하고 거리낌 없이 행복했던 두 시간’ 동안 저마다 주인공으로서 밀바닥 공동체 공간의 가치를 함께 드높였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런던의 밀바닥 공동체는 조금 색다르다. 파리 생활을 정리하고 런던으로 돌아온 오웰은 친구로부터 송금받은 약간의 돈에서 여객선 3등 칸 샷 등으로 쓰고 남은 돈으로 3박 4일 동안 간이 숙소 생활부터 경험한다. 극히 적은 생활비로 간이 숙박소를 전전하며 무일푼 부랑인이 되기 전 적응 단계였던 셈이다. 부랑인 생활로 들어가 임시수용소 생활 중에도 흙 파기 등 품팔이로 돈이 약간 생기면, 다시 이런 생활로 돌아가 집 없는 사람들의 갖가지 숙소들 실태를 파악하고 사람들을 만났다. 간이 숙박소에서는 저임금 일용노동자, 실업자, 노령연금 생활자 등을 만나서 그들의 삶과 생각과 언어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오웰은 런던과 그

49) *Ibid.*, p.101.

주변의 전체적인 빈곤 실태를 나름대로 파악했다. 특히 실업자나 부랑인이 사회적으로 매도되고, 법적으로 괴롭힘당하며, 각종 정책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악마화되어 따돌림당하는 사실 또한 포착해냈다.

이런 숙소들을 찾아 거리를 배회하던 가운데, 문득 그는 파리의 거리 풍경과 인상을 떠올려 비교해 본다. 영국 “하층민들은 프랑스인 같은 아주 강한 개성과 악한 의도 없이 더 잘 차려입었고, 표정은 더 말쑥하고 온순했다. 술주정도 덜하고, 흥먼지도 덜하며, 다툼도 덜하지만, 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설명하는 오웰은 “약간 영양이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들 몇몇 무리가 여기저기 길모퉁이에 서 있었지만, 런던 시민들은 매 두 시간마다 차와 빵 두 조각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파리에서보다 덜 열정적인 공기를 호흡하는 것 같다.”⁵⁰⁾라면서 파리와 런던 빈민들의 삶을 돌이켜본다. 파리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의지와 열정에 충실한 언행으로 독자적인 삶을 표현하고 산다면, 런던인들은 사람들의 언행을 읊아매는 강한 사회적 제도와 법규 따위에 위축되어 상대적으로 질서정연한 삶을 살고 있다. 달리 말해서, 더 산업화된 사회에 사는 영국인들이 인간적 삶에서 더 멀어지고 있음을 어렵פות이 조명한다.

이런 전반적인 압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인간적인 ‘건강한 본능’이 특히 눈에 띄는 장소가 있었다. 그곳은 페니필즈(Pennyfields)의 어느 간이 숙소였다. 워털루가(Waterloo Road)의 빈대 들끓는 숙소를 빠져나와 동쪽으로 이동해 찾은 곳이었다. 대개 공동 침실 하나에 십여 명이 자는 이런 숙소는 가까운 일터 노동자들이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묵는데, 런던에만 수십 개가 있다. 부자들이 이런 시설을 소유하고 대리인이 운영하는 꽤찮은 돈벌이 사업이었다. 페니필즈 숙소 이용자는 주로 부두 인부들이었다. 침대 간격에 따라 9펜스나 1실링을 내고 머물 수

50) *Ibid.*, p.143.

있다. 오웰이 주목한 장소는 이곳 지하에 있는 “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요리 냄비, 차 대접, 토스트 굽는 갈퀴 따위가 비치된 모든 숙박인이 공동 이용하는 부엌”⁵¹⁾이었다. 두 개의 커다란 벽돌 아궁이가 있는데, 불은 일 년 내내 밤낮으로 꺼지지 않았다. 불 관리, 부엌 청소, 침대 정리 등은 숙박인들이 돌아가며 맡았다. 일종의 자치 공동체 같은 공간이었다.

나는 그 부엌이 좋았다. 낮은 천장의 깊은 지하실 공간은 코크스 연기로 매우 덥고 졸리는 장소이며, 화염 불빛이 유일한 조명이어서 구석으로 김북은 그림자를 던졌다. 천장에서 늘어진 줄에는 달아빠진 옷 빨래들이 걸렸다. 대다수 부두 노동자들인 붉은 불빛에 비치는 남자들은 요리 냄비를 들고 움직였고, 빨래한 옷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일부는 아예 나체였다. 밤이 되면, 체커 게임이 벌어졌고 노래를 불렀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난 녀석이라네,”를 제일 많이 불렀고, 또 하나 난파선 관련된 인기 있는 노래도 곧잘 불렀다. 늦은 밤이면 때때로 값싸게 산 총알고동 한 동이를 들고 들어와 함께 나뉘 먹었다. 거기서 음식은 모두와 공유했고, 실직한 사람을 배려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세 번 수술받은 가엾은 브라운”으로 불리는, 거의 죽어가는 작고 창백하며 쭉글쭉글한 사람의 경우 어김없이 다른 사람들이 먹여주었다.⁵²⁾

겉으로 위축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들이 내적으로는 언제나 활기 있고 정감 넘치며 함께 모여 즐거운 공동체를 이룬다. 구성원들이 계속 바뀌더라도 공동체 내 인간적 나눔과 합리적인 운영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안정감을 준다. 이런 나눔과 공유의 상생 방식과 태도는 조금 다르지만, 제대로 나눌 것조차 없는 부랑인들 삶에서도 여러 차례 인간적 정감과 나눔의 행동들이 묘사된다. 그리고 이후 작품들에서도 오웰은 사회의 경계 혹은 밑바닥 삶들의 인간적 몸짓들을 그려내지만, 그들의 삶과 노력이 사회적 분위

51) *Ibid.*, p.141.

52) *Ibid.*, p.142.

기나 압력에 떠밀려 결국 실패나 좌절로 끝난다. 부족하긴 하더라도 이런 시도와 실패의 과정은 현대 문명사회의 야만적 본성과 뚜렷이 대비되어 전 시되도록 한다. 이런 대비의 의도는 실재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삶 속에서도 인간(적 삶)이라면 최소한 무엇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가를 깊이 궁리하고 돌아보도록 하는 계기를 만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파리와 런던』은 산업혁명의 고향이자 빅토리아 시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은 제국의 중심 도시가 성장하는 가운데 점점 왜소해지는 인간들 모습과 차츰 시들해지는 그들 삶에 대한 비판적 숙고를 담 아낸다. 그는 다른 작품들에서도 산업화가 더 인간다운 삶을 열어간다는 전망이나 약속과 달리, 오히려 인간다움의 유지나 추구의 기회를 축소하고 끝내 박탈하는 폐해와 국가·자본·종교가 전방위로 인간을 압박하는 법, 제도, 규범, 관행의 억압과 폭력 따위를 민감하게 경계하고 비판한다. 그는 심정적으로 런던이 평온하고 질서 있는 겉모양이지만 사람들의 실제 삶은 죽은 듯한 인상인 반면, 조금 무질서하지만 자유롭게 살아 있는 파리를 비교적 더 인간답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그는 문명의 두 중심 도시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서 전혀 인색하지 않은 공통점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고발한다. 이런 인상을 오웰은 “런던은 흥차 주전자와 직업소개소의 땅이라면, 파리는 술집과 노동 착취 업소의 땅”⁵³⁾이라고 정리한다.

역사 없는 사람들은 역사적 세력에 의해 단순 노동력으로 이용되지만, 인간으로서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한다. 역사적 세력이 보기에 그들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열등 존재”인 까닭에 “프롤과 동물은 자유롭다.”⁵⁴⁾ 이들은 구체적 현실을 넘어서는 추상적 일반론을 교육받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역사적 세력이 정교하게 의도하여 구사하는 유혹/위협적 언어 전략에 일시적 충동으로 선동되거나 동원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은 자

53) *Ibid.*, p.143.

54) George Orwell, *NEF*, pp.71~72.

기 존재와 의식을 일치시키는 ‘건강한 본능’을 상실한 경우로 보인다. 오웰은 이런 사례들 역시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적한다. 부유한 고객에 봉사하면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일확천금의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파리 호텔의 웨이터 발렌티(Valenti)와 칼라 있는 옷에 타이를 매고 같이 수용소 생활을 하는 부랑인 동료들을 국가 재정만 축내는 ‘인간쓰레기’라고 비난하는 실직한 젊은 목수가 대표적인 사례다. 두 사람 모두 자기 현존재의 처지와 분리된 공허한 생각의 시공간에 거주한다. 시공간 의식이란 국면에서 본다면, 발렌티는 멋진 연회를 즐기는 부귀영화의 백일몽에, 목수는 쓰레기들이 제거된 질서정연한 대영제국의 미래에, 각각 언제나 이미 도착해 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은 자기가 겪는 현재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망각할 수는 있지만, 같은 처지 사람들과 벽을 쌓게 되고 동료 의식을 갖는 데 실패한다. 이들이 상실한 서로 돕고 배려하는 인간적인 ‘건강한 본능’은, 앞서 노동자 가정 풍경에서처럼, 자기 삶이 세상의 유혹/위협에도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는 내공의 원천이다. 그 본능에 순응하는 역사 없는 사람들의 관점은 항상 자기들 생존이 달린 현재에 터를 잡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의 이야기는 공허할 따름이다. 다시 말해 과거에 관심이 없고 또 미래에 유혹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추상적 이상이나 가치가 제공하는 현재의 사명이나 의무에 정신 팔지 않고 자기 존재를 온전히 기울여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역사 없는 사람들은 역사가 없는 까닭에 아무런 목적 없이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더불어 생존을 도모해야 할 사람들과 온전한 공동체를 꾸릴 수 있다. 이들은 시간의 연속이라는 근대적 삶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원초적인 공동체, 목적 없는 공동체, 오롯이 더불어 생존의 수단인 공동체, 언제나 현재에 집중하여 즐거운 지금을 보내고 굳이 내일을 기약하지 않아도 괜찮은 공동체를 구성/폐기한다. 오웰은 역사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같은 공동체를 “세계 안의 별도의 세계로서 모두가 평등한 세계, 자그

맑고 누추한 민주주의(a small squalid democracy) 세계, 어쩌면 영국에서 민주주의라고 존재하는 형태 중 제일 가까운 형태의 세계일 것”⁵⁵⁾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들의 자리를 자기 글쓰기의 원점으로 하고, 이곳을 기반으로 바깥세상을 바라보면서 작품 활동을 열어가게 된다.

5. 맺는 말: 역사의 그늘진 자리, 희망의 텃밭

『파리와 런던』은 찬란한 현대문명의 그늘진 곳, 제국의 화려한 미래 비전에 짓눌린 가난에 관한 생생한 보고서다.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 대며 들볶는 사회적 인식과 저주의 낙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와 증언이기도 하다. “게으름뱅이”, “천한 동물”, “불한당”, “괴물” 따위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에서 격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여론과 이를 강화하는 법·제도·정책 등을 진지하게 조명한다. 오웰의 조명은 객관적 통계를 내 세우거나 양심에 호소하며 사회적 정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다. 작가 스스로 계급적 특권을 포기하고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직접 경험한 일상 삶의 내용을 보여준다. 속속들이 공개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 언어는 사회가 조작한 편견과 낙인을 강하게 반격하지도 않지만, 그저 오웰이 담담하게 전시하는 그들 삶의 방식과 지혜는 일방적으로 유통되는 낙인과 고정관념 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저절로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에 대한 일반인의 두려움은 조작되었고, 무분별하게 오염된 정보와 무지로 인해 생긴다는 진실이 파헤쳐진다. 특히 접시닻이 삶의 사회적 의미, 걸인들의 사회적 위치, 부랑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자활의 대안 등을 각각 다루는 22장, 31장, 36장은 그들의 일반적이지 않은 외모나 행동이 사회적으로 강제된 생활방식의 결과

55) George Orwell, *RWP*, p.144.

이지 원인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가 조작한 편견과 낙인의 산물이기도 한 부랑인 법은 그 편견과 낙인을 다시 강화하는 악순환의 장치가 된다. 법은 부랑인이 한 수용소에 하루만 머물도록 하는 까닭에 부랑인은 다음 수용소에 도착하기까지 언제나 걷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들이 길바닥에 주저앉기라도 하면 당장 곤봉을 든 경찰의 단속을 마주친다. “숫자로 보면 수만 명이 폐를 지어... 영국 땅을 오르락내리락해야만 하는 기묘한 일”⁵⁶⁾이 생긴다는 말이다. 일반인은 이런 기묘한 광경을 보면서 평소 받은 교육 내용을 확인하고 편견을 강화하며 두려움을 느낀다. 오웰은 부랑인을 미리 범죄자로 취급하여 배척하는 법, 제도, 정책이 아니라, 밑바닥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법이 되기를 요망한다. 다시 말해 부랑인 법이 부랑인을 대상으로 금지와 처벌 사항들만 나열하지 말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활을 위한 일자리 대책으로 수용소나 빈민구제작업장(workhouse)에 농장이나 텃밭을 운영해, 한 달 혹은 일 년 동안 머물면서 생활하도록 하고, 수확물은 현재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부랑인 동료들의 식재료로 쓰는 방식을 시작해보자고 제안한다.

오웰은 백여 명의 수용소 부랑인이 무기도 없는 서너 명 관리인에게 놀라울 정도로 고분고분한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일반인이 눈으로 확인한다면, 그들에게 찍힌 낙인은 어처구니없는 모함임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심각한 문제는 대중 매체에 실리는 글을 통한 편견과 낙인으로 조장된 무지에서 증폭된 두려움을 다시 강화하는 여론 주도 지식인 중산층의 역할이다. 그는 아주 객관적인 태도인 척하는 지식인들이 먼저 일종의 속물근성의 산물인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웰은,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관해 글을 쓰려면, 먼저 방

56) George Orwell, *DOPL*. p.216.

법적으로 생활 현장에서 직접 교류해보기를 권하고, 그것이 고정관념과 편견 탈출의 지름길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어울려봤다면, 누구든지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안다.”⁵⁷⁾ 혹은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본다면, ... 어떠한 본질적 차이도 없음을 알게 된다.”⁵⁸⁾고 설명한다. ‘어울려보다’와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다’ 같은 접근은 여러 다른 글에서도 포착되는데, 바로 오웰 글쓰기의 현장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표현이다. 또 사람들이 무심코 부랑인들에게 ‘그들은 그렇게 대우해도 돼,’ 하는 태도가 그들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향해 취하는 태도에 비해 전혀 공정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불공정한 사정을 알게 된다면, “부랑인의 자리에 (in a tramp’s place) 자신을 두고서 부랑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시작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입장 바꾸기를 시도해본다면, 그래서 단순히 “부랑인은 실직한 평범한 영국인이고, 법 때문에 방랑자로 살게 강요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떠돌이 괴물’이라는 이미지는 사라질 것”⁵⁹⁾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사실 『파리와 런던』이 다루는 내용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이다.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듯이, 작가가 겪고 설명하는 사실들 그대로 따라가며 그 시대와 장소를 생생하게 간접 경험할 기회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작품을 다룬 논문이 눈에 띄지 않는 게 어찌면 당연하다. 일반 독자 입장이라면, 표면적으로 설명되는 생생한 가난의 실상 외에 특별히 다룰 주제가 없다. 그런데 『파리와 런던』을 전체 작품들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위상이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두드러진다. 이를테면 오웰의 작품들을 관통하는 몇 가지 뚜렷한

57) *Ibid.*, p.128.

58) *Ibid.*, p.185.

59) *Ibid.*, p.218.

공통점이 보인다. 사람들로부터 인간적 품위(decency)를 앗아가는 전체주의적 권력, 산업주의, 종교 등의 억압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여론 주도 지식인과 그들이 만들고 맹종하는 이론과 이념, 혹은 교리 따위에 반대하고, 가장 취약한 밑바닥에서부터 인간적 품위를 회복하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인문적 사유의 현실이 그렇듯이, 인간화를 주장하는 그의 모든 작품은 인간의 패배를 보여준다. 오웰의 작품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영웅적 인간이 아니라, 실제 대다수 삶이 그렇듯,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인물들을 그린다. 그들의 방황과 패배를 보여줌으로써,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현대문명과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실행하는 냉혹한 잔인성을 돋보이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출발은 오웰이 왜, 어떻게 첫 작품부터 마지막 작품까지 '부랑인(버마 인민, 파리의 접시닢이, 런던의 일용노동자, 헌책방 직원, 교회 도우미, 외판원, 광부, 스페인의 노동자 의용군, 혁명적 일꾼 '복서'와 '클로버', 프롤)의 자리에서'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했다. 『파리와 런던』에서 두 개의 장소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표명하는 오웰은 당장 승리할 수 없지만, 그래도 흐르는 땀을 닦으며 함께 노래 부르며 아리랑 고개 넘어가듯, 고단하고도 행복한 현재를 온전히 누리며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밑바닥 인생들의 생명력의 원천인 삶과 생각과 언어를 조명한다. 그렇다면 오웰이 거기까지 가게 되는 여정을 충분히 설명해줄 배경이 되는 구체적 근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근대 사회가 '보편'과 '인류'를 공언하면서도 버마에서, 런던에서, 파리에서 그런 인생들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착취하고 폐기하는 이유를 따라가면서, 눈길을 '역사 없는 사람들'에게로 옮겼다. 논의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역사라는 말의 의미 변화와 나란히 근대의 시공간 의식 또한 변화했다는 사실도 밝혀야 했다. 이를 토대로 오웰의 자리와 역사 개념의 변천 과정에서 조성된 근대 지식인의 자리, 그 두 준거 지점의 대조적인 의미를 색다르게 해석할 근거를 찾아 나

갔다.

논의의 고갱이는 이렇다. 근대의 역사(관)는, 현재를 중심으로 미결정의 미래로 나아가던 인류에게 보편적이었던 '순행의 시간관'을 뒤집어서, 확정적 미래를 중심으로 현재를 닦달하는 '역행의 시간관' 위에 세워진다. 예를 들면 다양한 사건들이 종합되어 귀결되는 결말이 아니라, 마치 책 쓰기/읽기를 결론에서 출발하여 거꾸로 앞의 내용을 그 결론에 맞춰가는 식이다. 달리 말하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 그 필연적 미래를 책임진다고 가정된 현재의 '역사적 세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세력에게 유리한 다양한 과거 사건들을 인과관계로 배치해야 할 현재의 필요를 만든다. 역사적 세력은 늘 정치, 경제, 종교 등 다양한 옷으로 갈아입고 무대에 등장한다. 오늘날까지 근대 권력 정치의 배경에는 이런 역행의 시공간 의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근대적 시공간 의식은 상상된 공동체의 역사적 미래와 동일시하는 수많은 주체를 생산했고 또 여전히 생산하고 있는 한편으로, 수많은 타자를 생산했고 또 생산하고 있다. 이 글은, 그가 직접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오웰이 그 타자의 자리를 자기 글쓰기의 원점으로 삼고, 주체들이 동일시하는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공간 의식의 환상을 깨뜨리고자 했던, 일련의 진실 찾기 작업이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나왔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그 작업에 내장된 자기의 관점과 입장 등을 추려내고, 이를 근거로 분석한 근대적 시공간 의식의 대척점으로서 그의 글쓰기 원점을 해명해보았다.

나는 오웰이 『파리와 런던』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과 의미에 관해 질문한다고 생각한다. 근대의 시공간 의식은 사회나 체제의 발전을 위해 인간다운 삶과 행복은 항상 유보하고 연기하도록 교육하고 강요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오웰의 시대였던 20세기 초반은, 그런 역사의식이 세계적으로 충만해, 원폭이라는 공멸의 실험으로 최정점에 이르는 시기였다. 궁극적으로 사회나 체제라는 것도,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단순

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근대 500여 년 동안 인간다운 삶과 행복은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체제의 변형을 성취하는 미래에 온다고 믿고, 그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자기 현재를 바치고 분투하는 운명을 강요받아왔다.

제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식민지 침병으로 나섰던 청년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총을 들었던 젊은 노동자도, 게르만 제국을 위해 파시스트가 된 소년단원도, 원래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음을 누구든 알고 있다. 오웰이 부랑인들의 일반적이지 않은 외모나 행동이 사회적으로 강제된 생활방식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님을 밝히고 있듯이, 동원된 그들의 잔인한 행위는 타고난 악의 발로가 아니라 역행의 근대적 시공간 의식이 '건강한 본능'을 훼손하거나 강탈하여 조작해 '자동인형'으로 생산한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웰은 사회나 체제에 의해 이용되거나 폐기되면서도 인간다운 삶과 행복의 현재 순간들을 거리낌 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 없는 사람들의 세계와 생활방식에서 참된 인간적인 미래를 열어줄 '희망의 텃밭'을 발견했던 것 같다. 따라서 그가 제시하는 전망은 모든 인간의 건강한 본능이 인위적으로 억제, 왜곡,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발휘되는 자유로운 사회, 그래서 모두가 서로의 인간적 품위를 함께 지키며 살아가는 사회라고 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가 부랑인 문제를 논하면서 핵심 주제로, 무료하고도 반쯤만 살아 있는 방랑자에서 “어떻게 자존감 있는 인간 존재(self-respecting human being)로 되돌리느냐는 것”⁶⁰⁾이라고 역설하는 이유도 '건강한 본능'과 더불어 '인간적 품위'의 회복이라는 궁극적 맥락에 닿아 있다. 부랑인들은 일용직 일자리마저도 잃은 사람들로서, 수용소와 마가린 바른 빵 조각에 의존하는 생활로 내면의 건강한 본능, 그 뿌리마저 썩어가고 있었

60) *Ibid.*, p.221.

다. 오웰이 봤을 때, 세계에 더 넓은 희망의 텃밭을 제공하려면, 문명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인간화가 필요하다. 여태껏 수없이 진행된 대규모 사회적 운동, 혁명, 전쟁 따위에 소모된 인력과 자금이 비교한다면, 인간화의 과업은 턱없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 무명작가 오웰은 첫 작품 『파리와 런던』의 마지막 문장을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다.”⁶¹⁾ 라고 쓴다. 어쩌면 자기 삶의 불가역적 전환 선언인 셈이다. 지금 여기, 그런 선언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확보된 원점을 준거로, 그는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위한 또 다른 여정을 떠난다.

따라서 오웰 문학 전체에서 『파리와 런던』은 글쓰기 관점, 태도, 주제라는 세 각도에서 다른 작품들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며, 각 작품 이해의 토대로서 다양한 실마리들을 제공하는 중심 작품으로서 위상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61) *Ibid.*, p.230.

| 참고문헌 |

- 박경서, 「조지 오웰과 가난의 문제: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을 중심으로」, 『신영어영문학』 제32집, 신영어어문학회, 2005.
- 배운기, 「근대적 시공간의 성찰과 동일화의 경계 혹은 사이: 로컬리티-기반의 시공간 탐색을 위하여」, 『로컬리티인문학』 제13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 _____, 「조지 오웰을 찾아서-경계에 선 삶, 생각, 언어」, 『로컬리티인문학』 제19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 _____, 「근대 식민주의 비판과 탈식민의 남아 있는 과제들: 조지 오웰의 『버마 시절』을 중심으로」, 『로컬리티인문학』 제28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2.
- George Orwell, “How a Nation is Exploited: The British Empire in Burma”. 박경서 옮김, 『영국식 살인의 쇠퇴』, 서울: 은행나무, 2014.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New York: Verso, 1991.
- Ashcroft, Bill,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 *Post-Colonial Studies: The Key Concepts*, London: Routledge, 2000.
- Buber, Martin. *I and Thou*. Trans. Walter Kaufman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0.
- Colls, Robert. *George Orwell: English Rebel*, Oxford: Oxford UP, 2013.
- Fromm, Erich, “Afterword”, in *1984*. George Orwell,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1.
- Gottschall, Jonathan. *The Story Paradox: How Our Love of Storytelling Builds Societies and Tears Them Down*, New York: Basic Books, 2021.
- Hollis, Cristopher. *A Study of George Orwell: The Man and His Works*, New York: Racehorse Publishing, 2017.
- Murphy, Dervla. “Introduction”. *George Orwell, Down and Out in Paris and London*, London: Penguin, 2001,
- Newsinger, John. *Hope Lies in the Proles: George Orwell and the Left*, London: Pluto Press, 2018.
- Orwell, George. *Animal Farm*,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96.
- _____. *Burmese Days*, New York: Harcourt, 1962.
- _____. *Coming Up for Air*, London: Penguin, 2020.

- _____. *Down and Out in Paris and London*, London: Penguin, 2001.
- _____. *Essays*, London: Penguin, 2000.
- _____. *Homage to Catalonia*, London: Penguin, 2000.
- _____. *Keep the Aspidistra Flying*, London: Penguin, 2014.
- _____. *Nineteen Eight-Four*,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7.
- _____. *The Road to Wigan Pier*, London: Penguin, 1989.
- Rabasa, José. *Without History: Subaltern Studies, the Zapatista Insurgency, and the Specter of History*. Pittsburgh: U of Pittsburgh P, 2010.
- Stansky, Peter. *The Socialist Patriot: George Orwell and War*, Stanford: Stanford UP, 2023.
- Voorhees, Richard J. *The Paradox of George Orwell*, West Lafayette: Purdue University Studies, 1961.
- Woodcock, George. *The Crystal Spittit: A Study of George Orwell*, Montreal: Black Rose Books, 2005.

The World of People Without History

- *Down and Out in Paris and London*

Bae, Yoon-Gi

This article explores the position of *Down and Out in Paris and London* in the overall context of Orwell's literature. The evaluation on the position of a work is a method of dra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s, and can be a preliminary approach to organically capture Orwell's oeuvre. I examine Orwell's writing from three angles: the distinctive writing perspective, attitude, and subject that appear in Orwell's writing.

First, Orwell's writing perspective always comes from the origin of the present and the on-the-spot where issues occur. This point of view leads him to distrust the abstract theories that dominate modern society and the dream-like future they promise, and to properly see the truth of the issue through direct experience and disillusionment in the field. This is examined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the Orwell perspective and the change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ncept of history that gave rise to the modern ideas of time and space. Second, the writing attitude as an expression of a critical mind makes him stubbornly write against the huge false grain created by the trend of the times. It is intended to show the need to reconstruct the foundation of modern people's life, thoughts, and language by revealing the 'real' and 'truth' by removing the camouflage of the ideologies, movements, and wars

that dominate the contemporary era. To make this clear, I inspect the background of *Down and Out* by referring to *Road to Wigan Pier*, which summarizes the process of his growth and writing. Third, the writing theme is a dream for a society that enables humanization, criticizing the dehumanization inflicted on victims who are exploited, abandoned, and hidden by society in the militaristic atmosphere that has driven the world to the madness of competition and war between countries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dreaming of an ideal empire. His theme always germinates from the bottom-up. The bottom, like the hometown of one's own experience, is the origin of Orwell's writing.

Down and Out is not just his first work, but also a work that highlights the seeds of issues Orwell continues to raise in various ways in his later works with his writing style in these three phases.

Key Words: George Orwell, People without History, *Down and Out in Paris and London*, Modern Ideas of Time and Space, Community

· 논문투고일: 2026년 3월 7일 · 심사완료일: 2026년 4월 24일 · 게재결정일: 2026년 4월 29일

